

지혜의 말씀

불기 2566년 8월 / 통권 498호



대한불교조계종 **진해대광사**





證道歌 (증도가)

대 상 불 유 어 토 경
 大 象 不 遊 於 兔 徑 이 요
 대 오 불 구 어 소 절
 大 悟 不 拘 於 小 節 이 라

큰 코끼리는 토끼의 길에 놀지 않고
 크게 깨달은 사람은 작은 절개에 구애받지 않는다.

막 장 관 견 방 창 창
 莫 將 管 見 謗 蒼 蒼 하 라
 미 요 오 금 위 군 결
 未 了 吾 今 爲 君 訣 이 로 다

좁은 소견을 가져서 창창히 비방하지 말라
 깨닫지 못했으니 내가 지금 그대들을 위해서 해결해 주노라.

목 차

시와 불교의 만남 · 2

생각의 터 · 4

사라나무 / 윤성스님

사자단상(四字斷想) · 8

도솔지장 (兜率地藏) / 무경스님

대광사 8월 법회 및 행사 · 12

알림마당 · 13

백중기도 접수 안내

칠석기도 법회 안내

수능&수시 백일기도 입재

고맙습니다

20주년기념 특별 템플스테이



표지그림/원성스님

● 발행처 / 대광사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303(태백동)

Tel. 055) 545-95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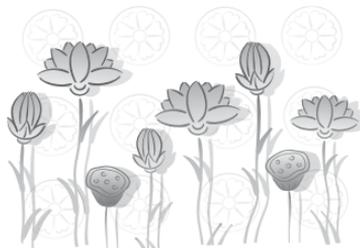
홈페이지 / ① 대광사

② www.daegwangsa.or.kr

● 발행인 · 편집장 / 무경스님

● 주 간 / 선화심

● 편집 · 인쇄 / 디자인스프링





사라나무

운성스님 / 대광사 회주

『‘말라죽’이 사는 ‘히라냐띠’ 강을 건너 ‘꾸시나가라’ ‘사라수’ 숲에 도착했을 때 부처님께서 ‘아난다’에게 이르셨다.

“나란히 늘어선 두 그루의 사라수 사이에 머리를 북쪽으로 향하도록 나의 침상을 준비해다오. 나는 몹시 피곤하구나. 눕고 싶다.”

아난다가 사라쌍수 아래에 그렇게 침상을 마련해 드리자 부처님께서 머리를 북쪽으로 하시고 오른쪽 옆구리를 아래로 향하게 하시고 오른발 위에 왼발을 겹쳐 올리시고 조용

히 옆으로 누우셨다. 그때 사라수는 때아니게 꽃이 활짝 피었다. 꽃들은 부처님 몸 위에 비같이 흘날려 떨어졌다.』

열반경의 말씀 중 일부다. 열반지에는 지금도 사라 나무가 쌍으로 서서 세존께서 열반에 드시던 그 날처럼 석양을 부르고 있고 아침을 열고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던 꾸시나가라 사라수 숲에는 이 나무가 동서남북으로 2그루씩 8그루가 서있었다. 그래서 사라쌍수라 하는데 그 형태가, 오래도록 유지되고 있었으며. 불타께서 이 세상을 뜨시자 그중 4그루가 말라 죽고 나머지 4그루는 무성하게 자랐다 한다. 인도에서는 이 나무를 신성한 나무로 여기고 있으며 이 나무는 인도에 비교적 흔한 나무다.

높이는 3m에 달하고, 잎은 길쭉하며 끝이 뾰족하다. 꽃은 3월에 피고 연한 노란색의 다섯 꽃잎이 핀다. 열매는 타원형이며 길이가 보통 13mm 정도며 5개의 날개가 있다.

나무는 무겁고 단단하여 목재로 많이 이용된다. 껍질에 상처를 내면 수액이 나온다. 이것은 래커와 리놀륨(색칠용 혹은 종이 만드는)을 만드는 원료로 쓰고 열매는 식용으로 쓰고, 나무는 가로수로 심기도 한다. 인도 중서부의 히말라야 자락에 분포해 있다.

나무 아래에 거처를 마련하여 수행처로 살아야 한다는 승



가의 '수하주' 원칙은 오래도록 이어져서 나무는 출가 수행자의 매우 중요한 의지처였다.

나무처럼 서로 다투지 않으며 서로 존중하며 살아야 한다는 뜻에서 스님들이 사는 곳을 나무숲이라는 뜻의 '총림'이라 했으며, 혼자가 아닌 나무숲같이 많이 모여 살아야 한다는 공존 사상을 중시해서 스님들 사는 곳을 대중처소라 하기도 한다.

부처님과 나무의 인연은 부처님께서 세상에 첫발을 내리시면서 시작된다. 마야 성모께서 룸비니의 꽃밭에서 무우수(근심없는 나무) 가지를 오른손으로 잡으시는 순간 출생하셨다.

불교 사상의 가장 중요한 비유가 되는 깨달음도 '뿔바라' 나무 아래서 이루어진다. 깨달음을 이루기 위한 오랜 세월의 수행도 이 나무 아래서 진행되었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오늘날의 승가상과 초기 불교의 승가상이 서로 많이 차이나기에 비교조차 불가능하긴 하지만 나무 아래에 거처를 두어야 한다는 규칙이 정해진 것은 그만큼 무소유 생활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나무는 소리없이 승가에게 의지처를 제공하고, 짐승이나 독충의 불시 침범을 막아주고, 추위 더위 등 자연재해를 피

하게 하기에 석가님께서 일생을 나무에 의지해 지내셨고, 도제들에게도 그에 의지해 조출하고 청빈한 삶을 지켜가라 하신 것이다.

오늘의 한국에서 나무가 지닌 가치는 초기 불교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있지만 다르면서 같은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다.

만약 산에 나무가 없다면 그 산은 이미 온전한 산이 아니다. 스님들이 맑은 지혜를 닦아갈 수 있는 수행처가 될 수 없으며, 수많은 생명체들이 기대어 살아갈 의지처가 될 수도 없다.

숲은 승가에게 절대 의지처일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절대 의지처다.

숲이 없으면 누구도 매일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없으며, 한여름 뜨거운 복사열을 식힐 수도 없다.

눈앞의 이익에 눈이 어두워 수많은 숲을 훼손하는 오늘날의 지구 현실을 보며 석가님의 숲을 소중히 여기시는 탁월한 정신을 새삼 생각하게 된다.

도솔지장 (兜率地藏)

무경스님 / 대광사주지

가끔 불자님들께 대광사가 관음도량인지 지장도량인지 질문을 받는다. 필자가 처음 출가한 당시에는 신도님들 대부분이 관음기도 도량으로 알고 계셨는데, 최근에 다니기 시작한 신도님들 중에서는 지장기도 도량으로 알고 계시는 분도 있는 듯하다. 사실 그 절이 어떤 도량인지 보려면, 그 절에서 가장 크고 중심이 되는 법당이 무엇이고, 그 안에 어떤 불상이 있는지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대광사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신 대웅전이 주법당인데, 전통적인 법도에 따르면 이 석가모니 부처님을 중심으로 좌우에 문수보살님과 보현보살님을 배치해야 한다. 하지만 대광사 대웅전은 관세음보살님과 지장보살님을 배치하고 있다. 그러니 관음도량도 맞고 지장도량도 맞는 셈이다.

이처럼 법당 안에 불보살님을 배치하는 전통적인 규칙이 있지

만, 창건주의 원력이나 신도님들의 신앙 형태에 따라 얼마든지 변형될 수 있다. 그래도 절의 이름을 정하고, 법당을 짓고, 불보살님을 모시는 것에는 기본적인 룰이 있기 마련인데, 간혹 이 3박자가 전혀 매치 되지 않는 절이 있다.

1년 전인가? 평소 가깝게 지내던 도반스님이 남해에 살고 있어 놀러 간 적이 있었다. 도반스님께 절 주소와 이름을 알려 달라고 하니 '보현사'라고 했다. 그래서 '아, 이 절은 보현보살님을 모신 보현도량이구나' 생각하면서 차를 몰았다. 그런데 막상 절에 도착하고 보니 달랑 하나 있는 법당 현판에 '약사전'이라고 써 있는게 아닌가?

그래서 속으로 '이 절은 특이하게 절 이름을 보현사라고 했으면서 법당 이름은 또 약사전이라고 붙였구나.' 하고 신기하게 생각했다. 그런데 더 놀랐던 것은 약사전 안에 들어가니 이 법당의 본래 주인으로 있어야 할 동방 만월세계의 약사여래부처님은 보이지 않고, 생똥맞게 서방 극락세계의 아미타부처님이 모셔져 있는게 아닌가?

그러니까 예를들면 종이백에는 루이비통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 안에 들어 있는 물건은 나이키 운동화이고, 이 나이키 운동화 깔창에는 삼성전자라는 로고가 붙어 있는 것만큼이나 이상한 광경이었다.

필자가 많은 절을 다녀 본 것은 아니지만, 이 절처럼 전통적인 법도와 기본적인 룰을 무시하고 불사 한 곳은 처음 본 터라, 신기하기도 하고 어이없기도 해서 재밌어 한 기억이 있다.

그런데 간혹 유서 깊은 절 중에서도 이처럼 전통적인 틀에 메

이지 않고 법당과 불보살님을 매치한 절이 있다. 대표적인 곳이 이번 백중기도를 마치고 성지순례로 가게 될 선운사에 딸려 있는 도솔암 내원궁이다.

선운사가 언제부터 지장성지로 각광 받았는지 알 수 없지만, 선운사에 있는 세 분의 지장보살님은 모두 특이한 점이 있다. 아마도 이러한 부분이 선운사가 지장성지로 이름나는데 한 몫 했을 것이다.

첫 번째는 명부전에 있는 조선후기 지장보살상이다. 명부전은 지장보살님과 죽은 사람의 죄를 심판하는 열 분의 명왕님을 모신 곳인데, 대부분의 절들은 이 명부전의 불상을 근엄하고 무서운 모습으로 조성한다. 그런데 선운사 명부전은 특이하게 장난스럽고 친근한 모습으로 조성했다.

두 번째는 지장보궁에 있는 조선초기 지장보살상이다. 이 불상은 일제강점기 시절 도둑맞아 일본으로 건너간 적이 있었는데, 이를 구입한 일본 기업인 꿈에 지장보살님이 자꾸 나타나 ‘내가 본래 있던 곳은 전라도 고창 도솔산이다. 그곳으로 다시 보내달라’고 재촉해서 1938년 11월에 다시 선운사로 돌아오게 된 신비한 전설을 가지고 있다.

세 번째는 선운사 산내 암자인 도솔암 내원궁에 있는 고려시대 지장보살상이다. 도솔암에서 ‘도솔’은 천신들이 사는 여러 천상세계 중 도솔천을 의미하는데, 이 천상세계에는 천신들이 사는 외원궁이 있고, 미륵보살님이 머물고 있는 내원궁이 있다. 그래서 미륵보살님과 관련된 절이나 건축물에는 ‘도솔’이나 ‘내원궁’이란 명칭을 넣는 것이다.

때문에 선운사와 도솔암을 한번도 방문한 적 없는 필자의 입장에서는, 49일간 백중 지장기도를 마치고 도솔암으로 성지순례를 간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지장성지를 순례하는데 왜 미륵도량인 도솔암을 가는 것이지?’ 하고 의아했었다.

그런데 자료를 찾아보니 도솔암 내원궁에는 특이하게 미륵보살님이 아닌 지장보살님을 모시고 있다는 것이 아닌가. 붕어빵에 붕어가 없고 팔이 들어 있듯이 말이다.

일반인들이야 법당 안에 미륵보살님을 모시고 있던 지장보살님을 모시고 있던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하겠지만, 상식적으로 도솔암 내원궁 = 미륵보살로 알고 있는 스님들이나 불교학자들 관점에서는 상당히 특이한 구경거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 이러한 언발란스한 매치는 불교학자들 사이에서 화두가 되기도 한다. 어느 학자는 도솔암 아래 있는 거대한 바위에 미륵보살님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내원궁에는 지장보살님을 모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싶은 사실은 미륵보살님을 대신하여 왜 지장보살님을 모셨는지 아닌가?

필자는 그 이유가 <지장경>과 관련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지장보살님에 대해 지옥 중생을 제도하는 분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만, <지장경>에서는 그보다 훨씬 위대한 보살로 소개하고 있다. 다음 세상에 미륵보살님이 부처님으로 오시기 전까지, 사바세계의 중생들을 보호하는 부처님의 직무대행자로 말이다. 그래서 필자는 도솔암 내원궁의 지장보살상은 미륵보살님의 직무대행자가 지장보살님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상징물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본다.

◎ 대광사 8월 법회 및 행사 ◎

- ◇ 8월 2일 : 칠석기도 입재 오전 10시 설법전
- ◇ 8월 4일 : 칠석기도 회향 오전 10시 설법전
- ◇ 8월 5일 : 백중기도 6재 오전 10시 설법전
- ◇ 8월 9일 : 수능&수시 백일기도 입재 오전 10시 설법전
- ◇ 8월 12일 : 백중기도 회향 / 보름법회 오전 10시 설법전
- ◇ 8월 13일 : 지장도량 고창 선운사 & 도솔암 참배
- ◇ 8월 27일 : 초하루기도 입재 오전 10시 30분 설법전
- ◇ 8월 29일 : 초하루기도 회향 오전 10시 30분 설법전
- ◇ 8월 30일 : 불대 20기 2학기 개강

※ 문의 및 접수 : 대광사 종무소 ☎055-545-9595

칠석기도 법회

- 입 재 : 8월 2일 오전 10시 설법전
- 회 향 : 8월 4일 오전 10시 설법전
- 동참금 : 2만원

수능&수시 백일기도 입재

- 입 재 : 8월 9일 오전 10시
- 회 향 : 11월 7일 오전 10시 30분
- 동참금 : 1인당 10만원



대광후원회

(2022.6.18.~2022.7.17)

변창인 20,000	박미애 10,000	조인우 10,000	배동환변호사 50,000
박성봉 50,000	김병문 20,000	조우현 10,000	박진호 100,000
박수현 50,000	윤소영 20,000	조한분 50,000	원광한의원 100,000
황두관 10,000	오현철 20,000	홍승운 20,000	쥬키백홀딩스 300,000
김경남 20,000	정대식 50,000	강성진 10,000	
정진이 10,000	배수진 30,000	공상섭 30,000	

◆ 급식소 후원 계좌 : 농협 355-0545-9595-03 대광사
수협 921-61-001338 대광사

※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군법당 후원 ♥ 지혜의말씀 후원

후원회 10만원 송민기 1만원 이영자 4만원 양재봉 1만원 조병렬영가 5만원

♥ 불국사 선원대중공양 동참

손향은 임계주 이동희 전정주 문미화 조필순 신분식 안희순 김순남 김향자 박덕옥
윤숙희 배경애 김경숙 김양순 서우엽 동우영 이미정 최덕희 김미혜 운영위원회

백중기도 접수

- 입재 : 2022년 6월 25일 오전 10시
- 초재 : 7월 1일 ■ 2재 : 7월 8일 ■ 3재 : 7월 15일
- 4재 : 7월 22일 ■ 5재 : 7월 29일 ■ 6재 : 8월 5일
- 회향 : 8월 12일 오전 10시 ■ 동참금 : 영가 1위당 2만원

※ 경전반 모집

경전반 수업이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로 변경되었습니다.
불교대학 강의실에서 회주 큰스님께서 법화경 강의를
하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진해대광사 찬불단 / 다도반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시라회 다도반 : 매주 목요일
- 찬불단 : 매주 금요일
- 문의 및 접수 : 종무소 545-9595



※ 신도님들의 협조바랍니다.

- 가족사항, 주소, 휴대폰번호 등 변경사항이
있으시면 종무소로 연락바랍니다.
-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2021년부터 기제사비가
영가 1위당 4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영가 추가시 5만원씩 추가됩니다.
(예: 영가 2위이면 40+5=45만원)





템플스테이 20주년

대광사
여름
템플스테이

■ 프로그램 : 날 용서하는 날

■ 운 영 : 휴식형

■ 참가비 : 1인당 4만원

(미취학 ~ 초등 : 무료, 청소년 : 2만원)





온라인 입금 안내

경남은행 : 518-07-0096440	예금주 - 대광사
수협 : 921-61-000421	예금주 - 대광사
농협 : 821145-51-042833	예금주 - 대광사
국민은행 : 654301-04-231813	예금주 - 대광사

대한불교조계종 **진행대광사**